코로나19 대응 강화 총력

장영수 장수군수, 진행상황 설명·극복·지역경제 활성화 담화문 발표

27일 장영수 장수군수는 군청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군민들에게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이에 대한 대응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장영수 군수가 군민들에게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이에 대한 대응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27일 장영수 장수군수는 군청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강력한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밝혔다.

먼저 장 군수는 지난해 2월 지역 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4개월 동안 전국에서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해왔으나 군민들의 철저한 방역 협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장 군수는 또 지난 달 26일 두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범군민 10일간 멈춤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기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장수군의 확진자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카드와 휴대폰 사용률이 낮아 동선파악에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진료소 8개소를 설치해 1만1,461건에 대한 전수검사를 펼치는 등 적절한 조치로 조기 차단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1일 이후 27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자가격리자도 모두 일상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안전한 단계가 아닌 만큼 방심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 군수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9월까지 전 군민 80%접종을 목표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도 제시했다. 군과 군의회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지원재난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장폐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부담 경감을 위해 8월중 주민세인 개인분 1만1,000원과 사업소분 5만5,000원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청정장수를 지키기 위해 생활 방역은 물론 경제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군민들도 방역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10월에 개최 예정인 '장수한우랑 사과랑'축제가 보다 안전하고 주민을 위한 위로의 축제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친환경·사회적 가치실현 협력

무주군-코레일유통-롯데푸드, 공동협력 실천 협약 체결

무주군은 27일 코레일유통(주), 롯데푸드 주식회사와 친환경·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동협력 실천 협약(이하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서울 영등포구 코레일유통 빌딩 다목적홀에서 조형익 코레일유통 사장과 황인홍 무주군수, 이진성 롯데푸드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협력 선언과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협력 협약 체결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실천과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지하고 실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무주군과 코레일유통, 롯데푸드는 ▲친환경 상품·서비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안심경영을 구현할 것과 ▲선도적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할 것, ▲투명 경영을 통한 신뢰 경영을 실현할 것 등을 약속했다.

무주군은 협약내용의 실천을 구체화시키고 반딧불 농·특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은 물론, 생산·선별·가공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재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인홍 군수는 "공동협력 실천 협약은 모두의 미래를 이롭게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를 극복하는 최적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서 시작된 실천들이 드넓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은 지난해 6월 코레일유통과 반딧불 농·특산물 생산과 판매·유통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고향뜨락(코레일 유통의 지역특산품매장)' 입점·판매를 비롯해 서울역 등 5개 역사 내 판매, 인터넷 및 농가주문·판매 등을 진행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롯데푸드는 코레일유통의 파트너사로서 창사 이래 60여 년간 국내 식품산업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로 꼽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 추진

무주군이 향로산 자연휴양림 주변 임야 10ha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은 최근 산불로 인한 임야 피해가 확대되면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저감을 위한 숲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올해 처음으로 실행한 사업이다.

군은 무주읍 오산리 791-1 일원 향로산 자연휴양림 주변 임야를 대상으로 2021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을 지난 3일 시작, 다음 달 초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향로산 자연휴양림 주변 임야는 산불위험성이 높은 산불취약지 A·B 등급으로 소나무류 등의 밀도 높은 침엽수림이 둘러싸고 있어 산불에 취약한 환경으로 구조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산불로부터 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고자 적지여부 및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변 등 산림연접부인 핵심구역에서는 나무 밀도를 조절하는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 산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인 일반구역은 기존 숲 가꾸기 방법으로 솎아베기를 추진한다.

군은 산불 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재해예방과 상대적으로 산불 위험이 낮은 중·하층의 활엽수 존치를 통해 산불에 강한 산림구조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혼효림 또는 활엽수림을 조성해 산불 확산을 저지시켜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특산물 쇼핑몰 '진안고원몰' 참여농가 모집

대대적 개편으로 9월 말 재개장 앞서 농가 판로 확대

진안군은 27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진안고원몰'의 개편을 앞두고 신규입점 희망 농가와 업체를 6월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소비형태의 변화로 농산물 인터넷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기존 운영하던 '진안샵' 홈페이지를 '진안고원몰'로 이름을 바꾸고,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재개장에 앞서 신규 입점 농가를 모집하고 품목을 다양화해 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품목을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고원몰'의 전신인 진안샵은 지난 2015년 개점한 이래 올해 초까지 진안군 전자상거래사업단에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농업인들이 직접 상품을 진안고원몰에 등록하고 배송하는 참여형 오픈마켓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주요 온라인쇼핑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과 노출, 홍보에 유리한 방식으로서 개편하며, 중간 유통단계 없이 농업인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농업인은 저렴한 수수료로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는 더욱 신선한 농산물을 착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진안고원몰 입점 신청 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에서 농특산물을 생산·가공하는 농업인과 업체이며 대상품목은 지역에서 재배·생산한 농축임산물과 이를 가공해 만든 식품 등이다.

입점희망자는 진안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6월 말까지 진안군청 농축산유통과 또는 각 주소지 읍·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쇼핑몰은 미니샵 형태와 로컬푸드 전문관으로 나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미니샵 형태로 일반 농가는 로컬푸드 전문관으로 입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추후 진안고원몰의 활성화를 위해 쇼핑몰 개장 및 명절 전후를 활용해 진안군 대표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할인쿠폰 발행, 사은품 증정 등 각종 이벤트와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 농가와 업체에는 소정의 택배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전화 출입명부 서비스 확대 운영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무주군청 청사(읍·면사무소 포함) 및 대중교통, 유흥주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전화 출입명부 서비스를 시행해온 무주군이 오는 6월부터는 전통시장과 식당, 카페 등으로 대상지를 확대한다. 이로써 무주군에서는 총 775곳에서 전화 출입명부 등록이 가능하다.

전화 출입명부는 전자 QR코드 등록을 어려워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시설 이용자 또는 방문자가 대상 장소에 부여된 번호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면 이용자 전화번호가 저장·관리되는 방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소방서, 119 허위 장난신고 강력대응 홍보

진안소방서는 119 허위·장난 신고에 강력대응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119 허위·장난 신고가 448건에 달하며 올해는 1분기 동안에만 31건의 허위·장난신고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허위·장난 신고는 화재·구조·구급의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의 출동 공백을 초래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허위)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장난전화라 할지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진안소방서는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119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강력히 법을 집행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여름철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점검

올 여름 막대한 더위가 예보된 가운데 장수군이 여름철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군은 28일까지 7개 읍·면 무더위쉼터 268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직원 등 관계자들이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 냉방시설(에어컨) 정상 가동 여부, 폭염시 주의사항 안내문 비치·시설 청소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코로나19로 예방을 위해 실내무더위쉼터 휴관상태를 대비해 야외무더위쉼터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이 휴관상태 코로나19 방역 격상완화와 지속적인 폭염이 발생하면 무더위쉼터 개방과 함께 냉방기 사용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장수=고판호 기자